

‘역사·생태보고 광주천’ 주민이 직접 가꾼다

광주 동구 학동 ‘초록마을 조성’ 마을탐방 사업 본격화
백범기념관서 백화마을 이야기·김구선생 정신 등 공유
광주천 환경정화활동 캠페인·어린이 생태교육도 추진

광주 동구 학동 광주천변이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초록마을로 다시 태어난다. 주민들이 직접 광주천 정화활동을 벌이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해 자연친화형 마을로 거듭나고 있어 화제다.

학동은 오는 10월까지 ‘광주천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초록마을’ 조성 일환으로 생태환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광주천은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이 가구 100호를 지어 전제민들이 정착해 살게 한 백화마을이 있는 곳으로 주민들과 회로애락을 같이했던 만큼 하천을 아끼고 가꾸 후대에 전수시켜야 할 생태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학동은 마을탐방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주민 40여명은 올해 첫 번째 마을탐방 워크숍을 가졌다.

학동행정복지센터와 학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전남 녹색연합이 함께한 이번 워크숍은 백범기념관을

시작으로 광주천, 학4재개발지역, 학3거리소공원 등을 역사해설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탐방에서는 전국에서도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소재한 광주백범기념관에서 김구선생의 정치후원금으로 조성됐던 백화마을 이야기 등을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김구선생의 정신을 배우기도 했다.

이어 재개발을 앞둔 학4구역 곳곳의 모습을 사진에 담기도 했다. 학동은 촬영된 사진을 추후 마을 관련 자료로 보관할 계획이다.

조종진 주민자치위원장(학동은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낙후된 지역이지만 골목마다 많은 이야기가 서려있고 무등산과 광주천이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마을)이라면서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광주천 등 다양한 생태자원과 지역유산을 아끼고 보존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동은 생태보고인 광주천에서 광



광주 동구 학동주민들은 최근 ‘광주천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초록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탐방 워크숍을 통해 광주백범기념관 등 마을 곳곳을 탐방하며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주전남녹색연합, 참여주민들이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광주전남녹색연합과 함께 지속적으로 광주천 정화활동과 생태하천교육을 진행, 하반기에 환경단체를 견학하는 ‘에코투어’를 실시하는 등 생태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친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어린이 프로그램도 마련해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도 이뤄진다.

더불어 학동은 학3거리 소공원을 등나무터널

등 초록마을로 가꾸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아시아문화전당-남광주시장-푸른길 공원을 연계해 천변 산책길과 무등산국립공원에 이르는 관광 명소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은희 학동장은 “우리지역 광주천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동식물이 공존하는 친수하천 복원에 참여하는 등 세대 간 소통하는 공동체문화 형성과 후대에 환경의 중요성 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지기자



전남개발공사 노조 제7대 집행부 정식 출범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승민) 제7대 집행부가 14일 장애인단체 후원물품 전달 등 봉사활동과 함께 정식 출범했다.

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과 이사회 이상석 의장,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이신호 위원장, 전국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협의회 조정호 위원장,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공공기관 노조 위원장과 임원, 전남개발공사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

사 일환으로 목포시에 위치한 장애인, 노약자 이용시설인 ‘명도복지관’을 찾아 점심특식 제공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 소속 장애인들과 출범행사를 함께 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전남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이고 노동조합도 도민을 위해 사회적 역할 수행을 다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우리 주변 소외계층의 아픔을 함께 나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동조합의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 대성여중, 전남자연환경연수원서 환경교육

담당 수북면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 전남자연환경연수원(원장 안기권)은 지난 13일부터 2박3일간 광주 대성여자중학교(교장 김원강) 3학년 18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프로그램으로 팀 대몬스트레이션(단체출렁기, 파이프라인, 바운딩볼)을 비롯해 환경 골든벨, 환경전문 교수 특강, 병풍산 숲탐방, 숲 이야기와 숲 밭종 놀이,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미세먼지 바로알기, 에너지절약 수첩 만들기, 미션 카프라, 환경 버튼 만들기, 축제의 밤 등으로 구성됐다.

마지막 날은 지렁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환경 애니메이션 ‘지렁이 똥 이야기’ 시청으로 마무리된다.

김오복 대성여중 교감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소통능



력을 키우는 것이다”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명문대성인’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안 원장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고, 지구를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자”며 “대자연속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하며 자신의 미래 꿈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광주일고 ‘개교 100주년 기념 학술포럼’ 성료

광주제일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포럼이 지난 10일 광주일고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광주서중일고100주년기념사업회와 광주일고가 주최하고 (세빛고을문화재단) 의향광주정신세계화사업단과 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단(RPM)이 주관한 이번 학술포럼은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기획됐다.

‘중국 만주와 상해임시정부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까지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포럼은 제1부, 정환담 전남대 명예교수의 ‘1920년 광주교보의 창학정신과 실천’이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 현장을 방문한 광주일고 학생들의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제2부 학술회의 및 전문가 포럼은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의 ‘중국 만주 융정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와 전개’, 김재기 전남대 교수의 ‘독립운동을 진작하고 임시정부의 재정을 호반하게 한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동순 조선대 교수의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자들의 문화활동’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박현모(여주대), 임영연(한남대), 김성환(조선대), 김용민(송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김종민기자

광주보훈병원 ‘환자안전 주간행사’ 실시

광주보훈병원(병원장 김재휴)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바람직한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해요 환자안전’이라는 주제로 1일째 환자안전 플래시몹·전직원 CPR 교육·순회생 체험행사, 2일째 환자안전센터, 3일째 리더십 라운드, 4일째 직원 힐링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내부, 외부 고객에게 알렸다.

보훈병원은 행사기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 낙상예방 등에 대한 리플렛을 배포했으며 환자안전센터와 안전나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마지막 날은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가 안전하다’라는 주제로 직원 힐링데이를 실시, 광주보훈병원의 환자안전문화를 고취시키고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승지기자

한국옥외광고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공제회’)는 옥외광고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회장 이용수 이하 ‘협회’) 및 협회 시·도지부와 공동으로 종사자교육을 진행한다.

그 첫 번째 행사로 14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전남 옥외광고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종사자 교육이 열렸다. 이날 교육은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의 종사자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옥외광고법령 및 세부법령에 대해 3시간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제회 김동현 이사장은 “간판설치 시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적법한 옥외광고물 제작으로 바람직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항상 경청해 센터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한편 공제회는 올해 전남을 시작으로 각 시·도 종사자 옥외광고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며 옥외광고협회와의 상생협력을 도모, 업계발전과 산업진흥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광주 삼도농협, 가정의 달 효사랑 이·미용봉사

광주 삼도농협(조합장 오종선)은 최근 삼도농협부녀회(회장 김영남)와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느 집 100명에게 효사랑 이·미용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부녀회와 광주지역 3개 미용실(최가을헤어드레서 신창정, 삼도미용실, 체인지미용실)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미용 봉사를 펼쳤으며 점심식사와 계절 농산물 선물로 지역 어르신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김동수기자



謹

▲김기래별세(배우자:최성교님) 최종국, 종선, 종록, 종순, 종남씨 모친상=발인:15일(수) 오후1시, 장지:영락공원(화) 연락처:본관2층동7호(250-4407)

▲이윤일별세(강병호, 강찬, 현숙, 현아, 초연씨) 모친상=발인:15일(수) 오전7시(50분), 장지:영락공원(화) 연락처:신관4층동402호(250-447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박동주별세(배우자:최광임님) 박철순, 철호, 철웅, 철순씨 부친상=발인:15일(수) 오전7시, 장지:문빈정사(화) 연락처:본관3층동10호(250-4410)

▲김용백별세(배우자:김정자님) 김대은, 효정, 윤정씨 부친상=발인:15일(수) 오전8시, 장지:영락공원(화) 연락처:신관3층동302호(250-4472)

그린장례식장(주) 24시 대기 TEL.062)250-4455

www.greenfuneral.co.kr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2019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수상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이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에서 경영철학과 비전, 경영전략 및 지원 활동 등을 기준으로 성과·공헌도·역량 등을 평가해 10개 부문에서 211여기 및 기관을 선발했다.

강 의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대를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부문에서 수상했다. 전국 최대 8선 의원으로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지방의회 역사의 산증인으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8대 회장직과 전남 시·군의회의장회 제8대 전반기 회장직을 맡아 중앙과 지방을 오가면서 지방의회 권익신장, 지방분권 개헌, 중앙-지방간 불균형 해소, 전남 시·군 간 공동체안 문제해결 등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의장은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여력이 다하는 한 비상사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기자

김승준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 교수 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 과제 선정



GIST(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융합기술학제학부 김승준 교수팀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공공안전 표지판의 시인성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 과제의 최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향후 3년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해 현장 비현실적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학제간 융합연구 전문가로서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 홍진형 교수 및 이지현 교수, ㈜슬트웍스(공동연구기관)와 함께 AR/VR 기반의 시인성 평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각종 상황·환경·사용자 시나리오에서 강인한 새로운 표지 및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안전 표지는 주로 가독성과 심미성 위주로 디자인돼 조명·눈·비·안개, 낮·밤, 설치위치, 주변건물, 방문자 연령 및 보행·차량주행 상태 등 각종 상황특성, 환경특성이 혼재된 실의 환경에서 일관성 있는 시인성 유지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길안내와 안전지원에 있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김 교수팀은 공공 시설물과 안내표지의 구성요소와 사람요소·공간요소의 맥락적 관계에 대한 정량적 해석을 지원하는 센서융합형 평가방법을 개발해 지자체 지원의 현장실증과 공공안전 디자인 인증·평가 서비스 사업화 모델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게 된다. /김종민기자



함평경찰서, 시민참여형 교통문화 교육

함평경찰서는 최근 관내 음악학원을 방문해 ‘시민주도·참여형 교통문화 정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시민주도·참여형 교통문화 정착’ 교육은 신화위반 등 사고사례 위주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원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구축했다.

또 교통안전 홍보대상의 다양화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학원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참여형 교통문화 정착과 함께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안전활동 강화로 제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계획했다. /함평=신재현기자

결론

●김정오(한국자유총연맹 담양군 지회장)·조광숙씨 장남 용한군, 오성은·최영미씨 차녀 유나양=18일(토) 오후 2시30분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Hotel ICC 1층 크리스탈볼룸

●김덕규(한국휘트니스클럽 대표)·정은숙씨 아들 호선군, 정일식·김해경씨 장녀 지혜양=18일(토) 오후 5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룸 4층 라비엔홀